

# 학술분야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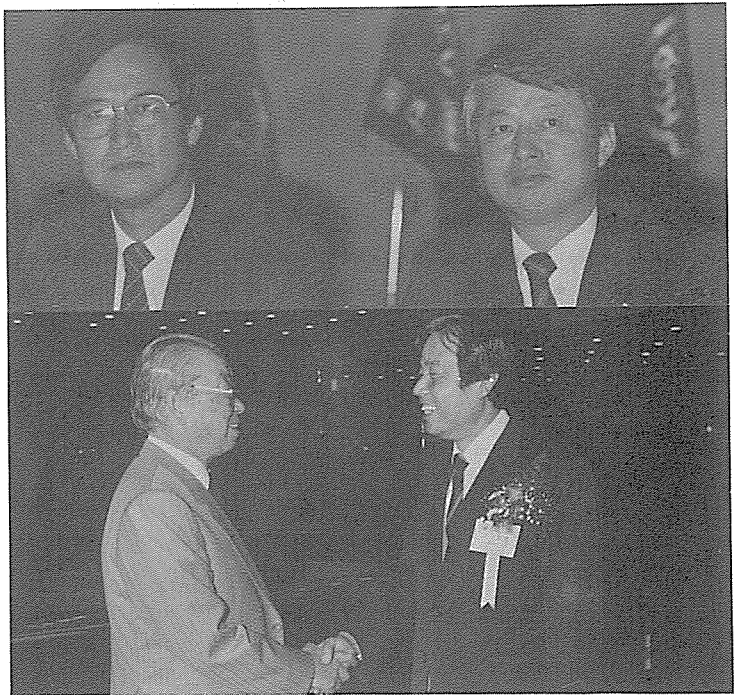
## ◇ 학술위원회 ◇

###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공직치과의사회 공동주최 학술대회 성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 : 尹興烈)와 공직치과의사회 (회장 : 林昌潤)가 공동으로 주최한 '86 학술대회가 지난 11월 1일 서울 여의도 소재 대한생명6·3빌딩 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어 큰 성황을 이룬바 있다. 서치와 공치의 공동주최라고는 하지만 거의 전국에서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2,000여회원이 참가, 예상을 뒤엎고 활기차고 질서 정연하고 실리적인 학술대회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林昌潤집행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제화와 고도 정보화시대에 들어서 치과의료인들도 이러한 시대적 변천과정에 부응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금번 학술대회는 개원의를 위한 임상부문에 중점을 두어 연제, 연자를 선정했다」고 말했으며, 尹興烈대회장은 원고없이 등단 인사말에서 「우리는 어디로 간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잘 모르고 있다」고 자성하고 국민들이 부정의료행위자를 찾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申旻澈치협회장의 격려사



〈모든 준비를 마치고 대회 진행과정을 주시하고 있는 尹興烈서치회장과 禹亨植총무이사(上)와 원로회원을 맞이하는 林昌潤공치회장〉

(격려사 전문 참조)가 있은후 특별강연순서로 학술대회가 진행되었는데 특별강연, 심포지엄 I, II, 및 런칭디스켓 손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특별강연

齒科診療에서의 應急處置

.....廉 廣 元 教授

#### II. 특별강연

마그네틱 오버덴취

.....金 英 洙 教授

#### III. 특별강연

醫療紛爭의 實態 및 對策

.....崔 光 律 辯護士

#### 심포지엄 I

(치과진료의 심미적 치료)

- 齒周領域에서의 審美的 治療  
.....孫 性 熙 教授
- 金冠架工 義齒에서의 審美的 治療.....鄭 晋 教 院 長
- 矯正領域에서의 審美的 治療  
.....南 東 錫 教授
- 顎顔面外科領域에서의 審美的 治療.....金 宗 源 教授

심포지엄 II

(치과진료에서의 문제점과 대책)

- 金冠架工 義齒의 問題點과 對策.....崔 富 병 教授
- 矯正治療時的 問題點과 對策  
.....李 起 受 教授
- 總義齒에서의 問題點과 對策  
.....金 昌 會 教授
- 根管治療時的 問題點과 對策  
.....金 英 海 教授

이밖에 Luncheon Discussion장에서는 「소아교정장치의 유지력 보강을 위한 fixed-removable orthodontic appliance」에 대한 단국대 치대 김용기교수의 연제를 위시 13개 연제가 Galaxy room, Galoria room등 두 강연장에서 발표되었는데 처음 시도된 런천 디스컷손은 많은 참석자에게 큰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특강 연자인 崔光律辯護士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李柱鳳치협부회장(上)과 「치과진료의 심미적 치료」를 주제로한 심포지엄의 진행 장면, 사진 좌로부터 좌장 梁源植교수와 연자 孫性熙, 鄭晋教, 南東錫, 金宗源 諸교수〉

서치·公齒 學術大會 激勵辭

친애하는 회원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와 공직치과의사회가 공동 주최하는 86년도 학술대회를 중심으로 축하하며 전국 6천회원과 함께 경하하는 바입니다.

근대사회는 첨단을 경쟁하는



〈申 旻 澈 회장〉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 단계에서 산업화정책등의 영향으로 종전의 보건의료개념이 점차 변용되고 있으며 서비스의 내용도 변모하여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하는데 시간적으로나 기능적으로 허다한 어려움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신중질병의 발생과 의료수요의 사회적 증가는 개발되는 최신 과학기술의 진보에 발맞추어 최신의 의료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촉



〈역대 학술대회사상 처음 시도된 런천디스컷손은 참가회원의 관심이 한데 집중되기도 했다. (연자: 연세치대 朴永哲교수)〉

진시키고 근대치과의학의 진보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측을 알지르는 국내의의 환경변화와 고도의 정보홍수시대의 상황하에서 과학의 학문적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이를 충족시키는 수단도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시대변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치협은 격년제로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

**발전하는 기술과 지식을 흡수 활용하고 있음은 고무적이며 희망찬 조짐**

고 있으며,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해에는 지부단위로 자율적으로 학술대회를 열도록 적극 권장하여 최근에는 지부뿐만 아니라 각 학회에서도 집담회등을 열어 날로 발전하는 기술과 학문에 대한 지식을 흡수 활용하고 있음은 약진하는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 고무적이며 희망찬 조짐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와 공적치과의사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의 준비내용이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지부학술대회에 새로운 기풍을 진작하는 신기원을 이룰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연제내용을 일람하면 치과의료인의 학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치중하는 한편 임상강좌도 배려하여 알뜰한 학술대회를 조직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보장 제도의 중핵인 국민의료보장제도의 확립을 통하여 균형된 복지사회를 건설하고 이 대업을 이룩하여야 할 새 시대와 새 사명을 맞고있습니다.

국민의 의료욕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를 불과 2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국민의 의료요구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침범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으로 이해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 전국민 의료보험이 1988년 실시될 것에 대비하여 준비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할 치과환자를

차질없이 수용하기 위한 치과의학의 근대화를 비롯하여 치과의료인 인력의 효과적인 공급, 그리고 권익보장을 위한 단합이 우선 요청됩니다.

그중에서도 치과의료인으로서의 직무를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학술연마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한편으로는 보험의료 공급의 주체로서 현행 제도상 법령을 따라야만 하는 부과된 의무와 의료공급상의 책임에 따르는 권리를 확보하는데 노력하는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치과의료인의 직무완수를 위한 학술연마에 치중해야 하며 의료공급상의 책임에 따르는 권리 확보에 노력해야**

그러므로 우리의 학술대회나 보수교육은 단순한 실적을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되며 더욱이 점수에 집착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우리의 의료공급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치의학술의 근대화가 필수조건이 되지만 학문과 기술을 연마하는 것은 우리의 기

본적 임무라고 믿음으로 우리는 내실있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최신 치의학 정보를 공급받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1989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4차 아태치과연맹총회는 이런 시각에서 특별한 의의가 있으며 우리의 학문지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본인은 국제협력사업의 중요성을 재삼 인식하고 86년 11월 9일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74차 세계치과연맹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하여 선진회원국 특히 미국, 일본치과의사협회 회장과 앞으로의 상호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은 국제협력관계의 유대는 치의학문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일환책으로도 필요하지만 회원국과의 친선을 증진하여 세계치과의사회의 공통된 이익을 추구하는데도 적지않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치과의사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학술연마로서 인류사회에 봉사하려는 정신을 투

철히 하여 더 높은 의료인으로서의 긍지를 지니며 선배를 존경하고 동료와의 우의를 돈독히 하며 후배를 선도함에 힘쓰는 우리의 윤리를 되새겨주시기 바랍니다.

1986년 11월 1일  
대한치과의사협회  
會長 申旻澈

## ◎ 동경도 치과의사회원 학술교류차 내한

지난 23일 서치와의 정례 교류행사 마쳐

서울과 동경都치과의사회 학술 교류회가 지난 23일 申旻澈치협회장을 비롯 양 치과의사회의 임원·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림픽호텔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李成馥 서치학술이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학술교류회에서 尹興烈서치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자매결연 후 18년동안 희생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선배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성년을 맞이한 기념으로 학술교류 이외에 바둑, 정구, 골프대회도 갖자」고 제안했으며 일본측은 마쓰다 동경도 치과의사회 부회장이 대독한 답사에서 「두 치과의사회의 학술교류가 치의학과 의술향상을 통해 양국 치과계의 발전은 물론 세계의 건강, 복지증진에도 크게 기



〈尹興烈서치회장은 바둑, 정, 골프대회를 통한 친목강화를 제안했다〉

여했던점」을 높이 평가했다.

감사패, 기념품전달식에 이어 열린 학술강연회에서는 동경의과치대 砂田교수가 연자로 나와「보존진료, ME기기」란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치협의 関丙一, 李柱鳳, 金正均부회장, 梁精康국제이사, 邊英男치무이사, 여자치과의사회의 徐貞姬회장도 초청인사로 참석하였다.

## ◎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제 3 회 학술집담회

대한구강·악안면치과의사회(회장: 関丙一)은 지난 25일(주) 종근당제약빌딩 15층회의실에서 다수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 3회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 내용은

- 권학주교수(미 미네소타대 치대)

Osseointegrated Dental Implants

- 김영수교수(서울대 치대)  
치과이식학의 보철학적 지견
- 김홍기회장(대한치과이식학회)  
골내·골막하 임플란트등 3개 연제가 발표되었다.

## ◎ 대한소아치과학회 대구지부 결성

대한소아치과학회(회장: 孫同鉄) 대구지부 창립총회 및 학술집담회가 지난 25일 대구 동인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李英姬씨가 지부회장에, 具國本씨가 총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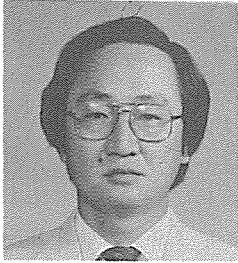
에 각각 선출되었다.

이어 열린 학술집담회에서는 정호길박사와 경북치대 김영진교수가 연자로 나와「소아교정의 필요성」「불우아동의 치과치료」란 연제로 각각 강연을 하였다.



〈사진 동 창립총회 장면〉

◎ 대한치주과학회 월례 학술집담회



대한치주과학회(회장: 崔翔默)에서는 치주학 전반에 걸친 학술

강좌를 매월 2시간씩 7개월 예정으로 연속적으로 개최 치주과학 전반에 걸친 임상강좌를 실시하

\*12 / 9 (3 : 00pm)

종합학술대회

1. Muco-gingival Surgery

: 손성희 교수(서울치대 교수)

2. Periodontal consideration in Restorative dentistry

: 최부병 교수(경희치대 교수)

3. Periodontology of the Japan

: ISAO ISHIKAWA 교수(동경의과 치과 치주과장)

\* 1 / 13 (6 : 30pm)

1. Examination and Diagnosis and Treatment plan

: 최상묵 교수(서울치대 교수)

2. Etiology of Periodontal disease

(Plaque, Calculus)

: 정진형 교수(단국치대 교수)

\* 2 / 10 (6 : 30pm)

1. Perio-Endodontic Interrelationship

: 임성삼 교수(서울치대 교수)

2. Oral hygiene(Plaque control)

: 정현주 교수(전남치대 교수)

\* 3 / 10 (6 : 30pm)

1. Occlusal therapy in Periodontics

: 황광세 교수(전 조선치대 교수)

2. Drugs and Periodontics

: 최점일 교수(부산치대 교수)

◇참고사항

- 매월 2번째 화요일(오후 6 : 30)
- 서울대 치대 1층 세미나실
- 참가비 비회원 20,000원

고 있다.

치주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 회원은 물론 일반 치과 의사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는 본 월례집담회의 앞으로 실시할 연제와 연자는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는 지난 11월 15일 서울 올림픽아호텔 회의실에서 제24회 정기총회 및 제19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바 있는데 많은 회원이 참석, 성황리에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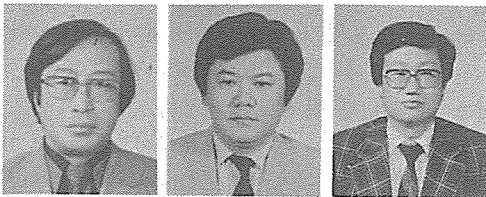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새회장에 張相憲박사(전 서울 강남구회장)와 부회장에 姜九漢박사(서울 강

◎ 대한치과교정학회 제24회 정기총회 및 제19회 학술대회 성황리에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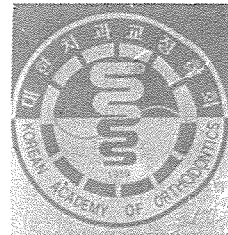
승치과원장), 孫秉和교수(연세대 치대)를 각각 선임하고 전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 15,592,288원과 사업계획을 이의없이 승인했다.

이어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연세대 치대 이종원선생의 「Angle

씨 III급 부정교합을 동반한 하악 전돌증환자의 악교정치로 증례」에 대한 강연을 필두로 A, B 2개 강연장에서 25개 연제가 참석한 회원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되었다.



〈신임 張相憲회장과 姜九漢·孫秉和부회장〉



〈최근에 발간된 학회지 16권 2호〉

## ◎ 대한구강내과학회 추계 학술집담회 성료

대한구강내과학회(회장: 김중열)에서는 지난 11일 광주 그랜드호텔 회의실에서 다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진단학교실과 공동으로 86년도 추계 학술집담회를 마쳤다.

이날 개최된 학술집담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Soft splint : 서울대 치대 이승우교수
- 2) Acupuncture Therapy : 조선대 치대 김기석교수
- 3) 북 구라파지역 치과계 현황 :

서울대 치대 정성창교수



〈학술집담회 장면〉

## ◎ IADR 한국지부 미젠코교수 초청강연

국제치과연구학회(IADR) 한국지부(회장: 이종훈)는 뉴욕주립대 치과대학(버팔로치대) 구강생물학과 과장이자 치주질환연구 소장인 로버트J.젠코교수를 초청, 지난 11월 17일 오후 6시 서울대 치대 6층 강당에서 치주질환의 미생물 및 면역학적 연구에 관한 강연회를 가졌다.

「Important hosts factors in perio dontal disease」란 연제로 강연한바 있는 젠코교수는 치주질환의 기전 및 치료에 관한 미생물 및 면역학적 연구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이기도 하다.

이 강연회는 국제치과연구학회 한국지부·대한치주과학회(회장: 崔翔默), 대한구강병리학회(회장: 林昌潤), 대한구강생물학회(회장: 이종훈)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 ◎ 대한치과보존학회 경북지부 결성

大韓齒科保存學會(會長: 이정석) 제63차 학술집담회 및 경상북도지부 결성대회가 지난 27일 大邱파크호텔에서 열려 지부 회장과 임원진이 구성되는 (사진은 이정석회장) 한편, 집담회는 경북치대 조규증교수의 'Injectable Cuttapercha Technique' 단국치대 홍찬의 교수의 'Intracanal Medicaments' 서울치대 嚴正文교수의 'Pin Restoration'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지부결성대회는 중앙의 崔盛根총무의 개회 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지부결성 경과보고 (부회장: 宋英鎬) 및 大韓齒科保存學會의 이정석회장의 치사가 있는다음 지부장 선출과 임원위촉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부장에 선출된 沈大燮씨는 축사에서 「오늘 결성된 보존학의 지부학회로 말미암아 지방학술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게되었음은 물론 지역치과보존 치료의 일대 전환점을 맞게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지부장에 선임된 沈大燮회장이 취임사를 하고있다〉.

## ◎ 대한치과이식학회 연수회

대한치과이식학회(회장: 金鴻基)는 지난 2일 가톨릭의대부속 강남성모병원에서 한국 최초의 형상기억임프란트 연수회를 가졌다.

20명이 참가한 이날 연수회에서는 형상기억임프란트의 고안자인 동시에 일본 형상기억 응용학회장인 후쿠요씨가 연자로 나와 「형상기억의 임상과 실제」란 연제로 강의했다.

그런데 형상기억브레이드는 기존 브레이드 보다 크기가 작으면서도(8mm) 2배이상의 힘을 받을수 있어 상악골이나 골의 양이 적은 경우에 사용된다.